

10월은 문화의 달

# “내것 만들려는 욕심이

## 다시 푸는 경서

###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①

坐禪要曉得善調養身心  
좌선요효 득선조양신심  
若不善調 小則傷病 大則磨滅 實在可惜  
약불선조 소칙해병 대칙착마 실제가석  
禪堂的行香坐香 用意就在調身心  
선당적행향좌향 용의취재조신심  
此外調身心的方法甚多 今擇要略說  
차외조신심적방법법환다 금택요략설  
雖未坐禪時 宜頂著自然正坐  
가부좌시 의순착자연정좌  
不可解作作意提起 否則火氣上升  
불가장요작의정기 비척화기상승

비척일작일무 변회변성 성조이노  
甚或發狂着魔  
심혹발광착마

공부를 지나치게 다그쳐서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는 마땅히 모든 반연을 쉬고(농고) 공부까지도 놓아야 한다.

그렇게 휴식하면 향이 반쯤 타도록에 점차로 편안해진 후에 다시 공부에 들어야 한다.

坐禪 有些受用時 境界很多 說之不了  
좌선 유사수용시 경계한다 설치불료  
但總不要去執着他 便得不到  
단이붙요거집착타 변에부도이  
俗所謂 見怪不怪 其怪自敗  
속소위 견괴불괴 기괴자패  
雖看見妖魔鬼怪來擾亂  
수간견요마귀괴래침요이  
也不要怕他 也不要害怕  
아불요관타 아불요해파

좌선때 수용하게 되는 경계는 매우 많아 다 설명할 수 없다.

좌선할때는 몸과 마음을 잘 조율양생해야 한다.

만약 잘 조절하지 못하면 작게는 병에 걸리고 크게는 마군이 붙게되니 실로 애석한 일이다.

선당에서의 향사르는 일은 신심을 조양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

신심을 조양하는 방법은 그부에도 많으나 요점만 간추려 말하리라.

가부좌시에는 애쓰지말고 자연스레 골추 앉되 일부러 허리를 굽듯이 하려하지말라.

그렇지 않으면 화가 위로 솟아올라

坐後會眼淚多 口臭氣頂 不思飲食 甚  
과후회안노다 구취기정 불사음식 심

## “좌선할때 귀신이 덤벼도 두려워 말고 어떠한 환희심에도 빠지지 말아라”

或吐血 或頭痛  
혹토혈 혹두통  
又不要驚憂垂頭 否則容易昏沈  
우불요혹우수두 비척용이혼침  
如覺昏沈來時 睜大眼睛 挺一挺腰  
여각혼침래시 정대안정 정일정요  
經路移動 昏沈自然消滅  
경로이동분부 혼침자연소멸

다만 그대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면 장애가 그대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흔히 이것을 괴이적은 것을 보고 괴이적다 하지 않으면 그것이 절로 사라지리라 한다.

비록 요괴스런 마군이 보이고 귀신이 덤벼들어 그대를 어지럽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침 후에는 눈물이 끼고 입 냄새가 나며 기가 머리꼭지까지 올라 입맛을 잃고 심하면 피를 토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머리를 숙일 필요는 없다. 그러면 쉽게 혼침에 빠지게 된다.

혼침이 온다고 느껴질 때는 눈을 크게 떠 부라리고 기지개를 하며 허리를 쭉 펴고 가볍게 엉덩이를 움직이면 혼침이 절로 사라진다.

就是見鬼 遇佛來 管解 亦莫驚記  
취시견석가불래체이마정수기  
也不要驚他 不要生歡喜  
아불요관타 불요생환희  
楞嚴所謂 不作聖心 名善境界  
능엄소위 부작성심 명선경계  
若作聖解 即受群邪  
작작성해 즉수군사

또한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오셔서 그대에게 마정수기를 주시더라도 상관하지 말며 환희심을 내지도 말라. 능엄경에서 이른바 거룩하다는 마음을 짓지 않는 것을 선경계가 하며 만약에 거룩하다는 알음알이를 짓는다면 곧 모든 사도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用功太過 急迫 覺心中煩燥時  
용공태과급박 각심중번조시  
宜寬緣放下 功夫也放下來  
의만연방하 공부야방하래  
休息約半寸香 漸漸舒緩 然後再提起用功  
휴식약반촌향 점점서복 연후재제기용공  
否則日積月累 便會變成 性染易怒  
성염이동분부 혼침자연소멸

龍眼

가을은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에서 먼저 만납니다. 내가 이곳 사명암에서 15년째 가을을 맞이한 언제나 가을은 산 위에서 내려 옵니다. 그리고 나는 가을 산빛은 퇴색이 아니라 새로운 힘이라는 걸 느낍니다. 물러나는 것이 있어야 새로 오는 것이 있음을 저 자연의 색들이 소리없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 사는 우리들만 그걸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조용한 가르침에 숙연한 경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 붉은 일세들의 찬란한 잔치는 내가 평생 일로 삼아온 단청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나는 올해 내가 구십둘이나 되었지만 그 자연이란 스승의 가르침이 해마다 새롭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눈이 침침해져 앞을 잘 볼 수가 없고 귀가 자주 어두워져 아침녘 산새소리도 여간해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붓을 놓은지도 오래고 누굴 맞아 얘기를 나누는 일도 삼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방이 들어와 나를 보살피는 상좌스님이 나의 눈이고 귀고 입이고 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은 찾아와 저 영축산을 물들이고 사명암 앞마당도 아름답게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암에는 두개의

### “부처님 가르침을

내 行業 만들어야  
수행이지  
내것을 불보살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정자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이름이 무작정(無作亭)입니다. 아무것도 하지않고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질 않아요. 우리 같은 출가자는 무작(無作)을 작(作)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몸을 가벼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의 도를 구하는 정자가 사명암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작정에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하려 합니다. 눈과 귀가 어두워 지고 거동조차 험겨운 이 늙은 산승이 하고자 하는 말이란 별것이 없습니다. 그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정당한 부처님의 회상을 무던 붓으로 현생에 재현하는 마음 하나로 붓을 쥐고 살아오며 느낀 것들을 주섬주섬 생각나는대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전생의 무슨 업연으로 이생에서 화업(畫業)을 수행으로 삼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번도 이 일을 싫어해 본 적은 없습니다. 출가한 사람이 광생을 두고 자신을 닦는 일로 부처님의 거룩한 회상을

재현하고 불당(佛堂)을 장엄하는 것을 삼을 수 있다는 것도 작은 복은 아니라 믿어온 것입니다. 식물을 거느린 입장도 아닌 산승이나가 세상사의 잡스런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어 오직 부처님을 찬탄하는 마음으로만 일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가지 않은 복의 한 기쁨이었었습니다. 금생의 마음이 어찌 금생에 닿는 것일 뿐이었습니까. 전생의 업력이 지중하여 이생의 마음을 받게 되었고 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내생의 마음을 닦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나는 붓을 잡고 평생을 살았고 붓 잡는 매 순간마다 부처님의 법을 받들었으니 이 화업도 금생만의 업만은 아닐 것입니다.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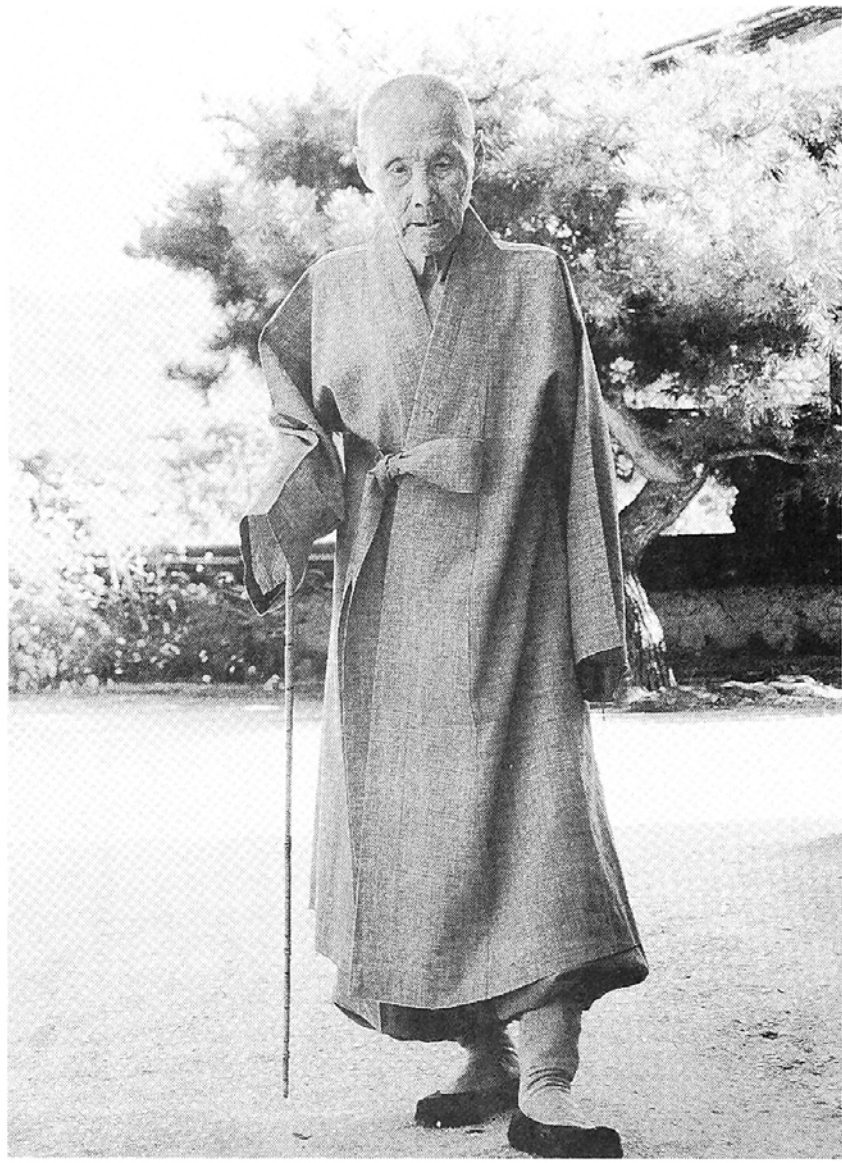
전에 황악산 직지사에서 문(門)을 단청한 적이 있습니다. 단청이란 전해오는 모양과 필법이 없지 않으나 매번마다 일하는 사람의 창안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직지사 문도 내가 나름대로 창안을 가미하여 마친 일이 있는데 나중에 무슨 책을 보니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인의 유점사 문살과 그 단청이 꼭 같더군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스님이 전생에 거기서 일을 했던가 봅니다.” 하더군요.

내가 꼭 전생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 전생의 모습에서 비롯되었음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의 모습이 오늘 기억되는 것처럼

나의 전생 모습이 오늘의 내모습 어디엔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식이 어두워 그걸 모르고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내 모습 후생의 내 모습도 결국 오늘 지금의 내 모양과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내생의 어디선가 다시 불화를 그리고 단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솜씨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불보살님의 말씀을 가벼히 여기지 않는데 공부의 큰 근본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실행하는 가운데 그 묘묘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실행의 근본은 신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나오는 것인데

## 혜각스님 통도사 사명암



약력  
· 1905년 황해도 신천 초  
· 20년부터 5년간 이화응스님에게 단청 시사  
· 38년 강화 전등사서 비구계수지  
· 불교미술전람회 중신심사위원  
· 92년 중요 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기능보유, 불교 미술전람회 수상다수

격조높은 작품·감동적인 영상—불교TV영상물

## 불교TV 영상물은 한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시리즈 제2집 5선 출시

- 1 출가 새로운 탄생**  
수계선원과 행자교육의 대표적 가람, 불보종장(佛寶宗場) 통도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수행자들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담은 작품. 한국불교만이 간직한 독특한 수행체계와 과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상이 펼쳐진다.
- 2 영상포럼 내원사**  
72540년 부처님오신날 특집  
한국의 대표적인 비구니선원으로 널리 알려진 내원사의 아름다운 영상이, 전제된 카메라앵글에 포착된 내원사의 하루는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공선이 되어버린 산사의 모습 그대로이다.
- 3 산중편지**  
72539년 신년영상에세이  
속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사의 비경과 불도(佛道)를 구하는 이땅의 수행자들이 보내는 산중편지. 자신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승스님의 신년에세이가 눈덮인 산사의 비경과 함께 음악처럼 펼쳐진다.
- 4 적멸보궁을 찾아**  
72540년 일반집필  
적멸보궁(寂滅寶宮)은 교조(敎祖)석가모니부처님의 진신舍利(眞身舍利)를 봉안한 사찰 당우(堂宇)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불자들의 순례지이자, 기도처로서 가장 신봉되고 있는 성지인 5대 적멸보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 5 산사의 향음·만들만화공양법회**  
불교TV 개국특집  
속세의 탐·진·치에서 벗어나 고요한 자태를 간직하고 있는 산사에는 언제나 향기로운 아름다움이 있다. 그곳은 또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정화하는 청량제와 같은 곳이다. 불기2539년 부처님오신날 불교특집 만들만화공양법회는 육법공양의식 중계방송을 녹화한 것이다.

VHS·5개 1SET/ 소비자:110,000원 (VAT포함)



불교 TV 영상포교사업단  
TEL: (02)3272-0781-5/706-3502-5

·영축산 통도사 금강계단 석등부도